



## 1. 전환기의 의미에 대하여

전환기는 비단 에너지 정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분야이든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굳이 헤겔류(類)의 역사적 변증법적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작게는 개인의 일생이나 가족사, 일국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서 시행착오의 연결은 나 아닌 타인의 역사라고 하는 오만 때문에 거듭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 했다. 인간은 너무나 망각적인 동물이라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70년대 두차례의 세계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고통을 겪고서도 83년부터 시작된 저유가 시장의 편안에 젖어 86년부터의 대폭적인 유가하락에 너무나 느긋하여 아무도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왜 쓸데없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귀찮게만 생각했다. 이는 우리뿐이 아니라 넓게는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가를 다시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석탄 한 줌, 석유 한 방울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다. 이는 일찌기 프랑스가 그러했고 그보다 더는 영국이 그러했다. 그것은 선진국들이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에너지 자원의 역사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하여 온갖 지혜를 짜낸 까닭이었다. 그 결론은 바

특별기고

# 전환기의 에너지 정책방향



서주석

동력자원부 에너지 정책과장

로 에너지 자원에 관한 한 일찌기 말사스의 경중에 암시를 받아 70년대 초 로마클럽의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로 고갈성자원은 유한하다는 역사적인 철칙이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해답은 분명하다. 귀중한 것은 아껴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비단 동양의 지혜뿐 아니라 서양에도 나타났었다. 영·미의 청교도정신이 쇠퇴하면서 그 후손들은 방종하여 인류역사에 최악과 자기파멸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다. 이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21세기의 태평양시대의 도래로 역사의 축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이나 중남미 멕시코 등 산유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거울삼아 에너지문제의 슬기로운 극복에 항시 유념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겠다.

## 2. 국내의 에너지 환경

세계 에너지 환경은 80년대에 들어와 에너지소비증가율의 둔화와 유가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종래 원유가격은 바렐당 34불에서 83년 이후 29불 수준으로 하락한데 이어 86년부터는 다시 바렐당 18불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여 유가뿐 아니라 석탄, 우라늄 등 타 에너지자원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물량도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 장기 에너지 수급 안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는 90년대 중반에 제3의 석유파동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 전문가들의 경고도 의미있게 다루어 우발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80년대에 들어와 전력을 중심으로 심지어 78년부터 절대부족분을 해외에 의존하던 무연탄마저 최근에는 국내탄의 재고누증으로 국내석탄산업은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86년부터 석유 원유가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그간 국내 원유제품가격은 다섯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석탄의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데다 소비자의 소득 및 생활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총에너지의 석유의 존도는 그간 정부의 강력한 석유대체에너지의 이용확대노력으로 78년의 63.3%에서 87년에는 44%까지 크게 감축되었으나, 저유가시대가 지속되는 한 92년에는 51.6%로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총에너지의 소비증가 추세도 80년대 초반에는 연5% 수준의 증가에서 향후 91년까지 7%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급구조는 종래 신탄 및 석탄 등 고체에너지중심에서 석유중심의 유체(流體) 에너지 단계를 거쳐 향후 고급에너지인 가스 및 전기로의 이행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의 수립·추진이 요구된다. 뿐만아니라 절대부족시대에서 공급과잉시대로 전환되고 최근 정치 민

주화에 따라 소비자의 복지 및 서비스수요가 크게 증폭될 전망이다므로 종래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질과 양을 병행한 에너지 정책의 전개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요 에너지 전략화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3. 에너지정책의 기본전략 방향

에너지정책의 기본전략은 경제의 지속적인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와 서비스의 질을 합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 대안의 모색에 있다 하겠다. 이는 에너지정책이 항상 경제성(Economy)과 안정성(Security)의 이율배반적인 판단준거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실현가능성에 바탕을 두어 설정, 추진해야겠다. 특히 최근의 개방화 내지는 국제화에 따른 여건변화를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요정책기조로는 첫째, 창의, 자율, 경쟁에 기초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에너지 분야의 경제활력을 증진시켜야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의 정부규제와 간여를 축소하고 공공부문의 투자활동을 극소화하되 공정한 경쟁 원리가 적용되도록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해, 안전 및 복지 등 경쟁성이 제약되는 부문에 대하여 정부 및 공



공기능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이 상실되거나 향후 경쟁력이 배양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겠다. 둘째, 정치민주화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산업에 경쟁원리를 확대도입하고 대국민 서비스와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 및 단체에 대폭 위임·위탁하여, 관련 서비스의 현지화를 촉진하여야겠다. 셋째,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 각 계층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형성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개 및 민주행정절차의 활성화를 촉진하여야겠다. 이와같은 정책기조하에서 추진해야할 주요전략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에너지 자원의 안정 공급 기반 강화

이를 위해 국내 대륙붕 및 해외 유전을 적극 개발하여 2000년대까지 소요석유의 20% 수준을 자주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수입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경제적 안정확보공급체계를 확립, 추진하여야겠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선 및 지

역을 다변화하고 장기공급계약, 현물시장구매와 개발수입체제를 균형, 조화있게 확립, 추진하고 국제화에 대비하여 선물시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에너지자원의 비축능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이다.

#### 나.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저유가시대의 진전과 소득확대에 따라 국내 에너지산업은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이 더욱 시급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내외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국내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비경제적 탄광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전략상 일정규모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탄광에 대해서는 다소 경제성이 낮아도 육성방안을 마련, 지원할 방침이다. 정유산업에 대해서도 경질유증심의 수급구조에 맞추어 증질유분해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화 내지 종합에너지산업으로 성장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전력산업에도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경영참여 등 경제급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산업은 여타부문보다도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의 통제와 간여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여 여건변화에 비추어 민간주도의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격기능의 활성화, 경쟁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

진해 나갈 것이다.

#### 다.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촉진

우리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입국이 최우선 과제이며 유한한 에너지자원의 고갈성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특히 에너지 이용효율향상은 날로 가열화 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에너지비용절감은 물론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나아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전체에의 파급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복합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역점을 두어야겠다.

#### 4. 결론

이상 80년대 경제 및 에너지 정책의 전환기에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전략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향후 추진해야할 정책의 핵심은 정치·경제민주화의 전개에 따라 민간주도의 경제운용과 경제분권화 요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응해 나가느냐에 있다. 또한 시대와 여건이 바뀐다해도 에너지 분야는 항시 안정성과 경제성의 조화가 요체이므로 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종래 효율증심의 정책추구에서 공정한 경쟁원리하에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수요와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여건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겠다.